

합격기  
[제53회 행시 일반행정직렬 합격]

## 긍정적 생각의 힘



이 강 석

- 1983년 10월 생
- 서울동북고등학교 졸업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졸업
- 제 53회 행정고시 일반행정직렬 합격

### I. 수험생활을 회고하며

이번 여름처럼 유달리 폭염이 심했던 2006년 여름, 행정고시를 시작해보겠다고 고시촌에 방을 구하러 다니던 것이 었그제 같은데, 그 이후로도 어느새 3번의 겨울이 더 지나고, 이제는 합격생으로 여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합격 수기를 쓰기위해 지난 기억을 끄집어 내려니 무작정 행시에 뛰어들어 어떻게 든 해보겠다고 고시촌을 들락거리던 시절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갑니다.

‘별거 아니겠지’하는 자만심으로 행시를 시작하고 나서 2007년 1차에 낙방하고, 그 이듬해에는 2차에서 낙방하면서 점차 자신감을 잃고, 불안해지는 미래를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주변에서 취업을 위해 어학연수나 교환학생을 다녀오는 모습을 보면서 소외감과 자괴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또 뒤에서 응원해 주시는 부모님께 죄송스러운 생각에 마음 한켠에 짐을 지고 지내야 했습니다.

이런 불안과 걱정은 비단 저뿐만 아니라 많은 수험생 여러분들이 동감하시는 부분일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지금도 자신과의 힘든 싸움을 하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저도 그런 순간에 쉽게 좌절하지 않았기에 합격의 결실을 맺을 수 있었습니다.

제 공부과정과, 수험생활 관련 노하우들이 다른 수험생 분들께 일말의 도움이 라도 되었으면 하는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합격 수기를 써볼까 합니다. 내세울 것 없는 고시생활 이었지만, 가볍게 읽어보시고 힘내시라는 응원의 메시지로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II. 우여곡절 많았던 수험 생활

### 1. 고시촌에 첫발을 내딛다 (06. 7월 ~ 07. 2월)

2년간 다니던 대학을 그만두고, 다시 대학 신입생이 된 저는 장래의 진로에 대해서 진지한 고민도 하지 않고 부모님의 권유에 의해서 행정고시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습니다. 자발적 동기부여가 아니었기에 공부시작을 차일피일 미루던 저는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나서야 이제 더 미룰 수 없다는 절박함을 느끼게 되었고, 일단은 고시촌에 들어가서 공부해야겠다는 막연한 생각으로 고시촌에 발을 잡게 되었습니다.

혼자서 공부하는 것에 익숙한 공부 습관 때문에 스터디를 구하지 않고 전과목에 걸쳐서 학원의 1,2순환강의를 수강했습니다. 경제학은 학교에서 미시와 거시수업을 한차례씩 수강한 덕에 어렵지 않게 정리하면서 따라갈 수 있었고, 다른 과목들도 처음 접하는 호기심 때문이 있는지 즐거운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어설피게나마 각 과목별로 대강의 골격을 잡아두었던 것들이 이후의 수험생활에 큰 토대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처럼 순탄했던 초기 수험생활은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되었습니다. 밀도 끝도 없는 ‘근거 없는 자신감’을 키웠고, 덕분에 07년 행시 1차에 보기 좋게 낙방하고 말았습니다. 시험 바로 다음날 쓸쓸한 기분으로 고시촌을 떠나던 그 기억은 다시 떠올리고 싶지 않은 추억 중 하나입니다.

### 2. 학교를 다니며 고시를 준비하다 (07. 3월 ~ 07. 12월)

07년 행시 1차에 떨어지면서 저는 바로 복학 신청을 해야 했습니다. 학교를 잠시 휴학하고 고시를 준비할 수도 있었지만 시간낭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학교를 다니면서도 고시를 준비할 나름의 자신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07년 봄학기에는 시험과 직접적 연관성이 떨어지는 경영학이라는 전공 탓에 고시 관련 공부를 많이 할 수 없었습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강도 높은 특별 프로젝트가 많이 진행되는 수업을 듣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일단은 학점 관리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저의 희망사항이었고, 결과적으로는 학점과 고시공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불행한 시기였습니다.

다시 또 발등에 불이 떨어진 저는 여름방학을 온전히 고시공부에 투자해야 했습니다. 06년 말부터 07년 6월까지 7개월 가까이 손을 놓고 있었던 행정법을 정리해야겠다는 각오로 매일 혼자 도서관으로 출근하여 『행정법특강(홍정선 저)』을 정독하면서 정진 강사의 『더 행정법』으로 단문을 정리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경제학 중에서 취약했던 미시경제학을 중심으로 경제학 문제 풀이를 시도했습니다. 『해설이 있는 미시경제학(이영환 저)』과 『거시경제론(정운찬, 김영식 저)』의 문제를 풀고, 답안과 비교하면서 나름의 풀이집을 만들었습니다. 시험장에서 답안지를 쓴다는 느낌으로 나름의 목차도 구성하는 작업을 꾸준히 했습니다. 그렇게 여름방학

이 훌쩍 지나갔고 2학기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2학기는 1학과 달리 운 좋게도 법대에 개설된 김기홍 강사님의 <행정법 연습>이라는 수업과 정의과 한정택 교수님의 <한국의 선거와 의회>라는 수업을 통해서 고시에 최적화된 공부를 할 수 있었고, 그동안 해왔던 공부 덕분에 좋은 학점까지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선거와 의회>라는 수업은 선거, 정당, 의회 같은 제도권 정치에 대해서 내공을 쌓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한 학기동안 한국 제도정치와 관련된 논문 30여 편을 꼼꼼히 분석하고 관련 문제를 심층적으로 조사, 토론하는 과정에서 비판적 사고 능력을 배양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이라면 정치학의 경우 학교에서 논문을 많이 읽을 수 있는 수업을 택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 3. 처음으로 1차 스터디를 하다 (08. 1월 ~ 08. 2월)

그렇게 07년 가을학기가 끝나고 같은 학교 친구들과 08년 행시 1차 대비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잘 모르는 사람과의 스터디 구성은 불완전 정보(?)에 따른 위험이 있었으므로, 같이 행시를 준비하던 학교 친구들과 세 명이서 스터디를 구성했습니다. 다행이 서로 마음이 비교적 잘 맞았고, 서로 자극을 주었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일 수 있지만 1차 준비만큼은 혼자 하는 것보다 스터디를 구성해서 함께 문제를 풀고 토론하면서, 같은 문제, 같은 지문을 바라보는 여

러 시각에 대해서 인식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때 스터디의 운영방식은 스터디원들 간에 자유롭게 정할 수 있지만 저의 경우에는 기출문제든, 학원 모강시험지든 각자가 풀고 싶은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해서 풀 뒤, 시간을 함께 맞춰서 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루에 두 과목씩, 많게는 세 과목씩 풀어가면서 스터디를 진행하였습니다. 처음 1차를 준비하는 분들께서는 잘 생각해보시고 수험 전략을 구상하셨으면 합니다.

저는 1차를 준비하기에 앞서 07년 1차 낙방의 원인이 무엇이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보았고, 그 결과 기출분석이 전혀 없었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는 웬만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평범한 사실을 간과한 것입니다. 학원 모강만 풀고 적당히 나오는 점수에 안주했기에 불합격은 어쩌면 당연한 결과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먼저 시작한 것은 최근 3년간 행시와 입시의 1차 기출 문제를 풀고 분석하는 작업이었습니다.

기출의 분석방법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저는 문제를 풀고, 40문제 모두 재검토하면서 예컨대, 답이 되는 보기와 그렇지 않는 보기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체크하거나, 문제 지문유형과 답이 되는 보기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거나, 문제 유형별 최적의 접근방법은 무엇인지를 분석하는 등의 과정을 꾸준히 하였습니다. 또 기출에서는 어떤 보기들이 출제되는지, 어떤 함정을 주로

이용하는지 같은 것들을 파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1차 스테디의 시작과 끝을 이런 기출분석으로 대비했습니다. 다만 1차 시험의 경우, 특히나 언어나 상황의 경우 편견이나 고정관념이 작동하는 순간 문제의 의도와 상관없는 방향으로 관점이 형성될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출 분석에 너무 얽매어서 관점을 좁히기 보다는 분석한 내용을 외우지 않고 이해만 하고 몸으로 익히는데 중점을 두었던 점이 유효했던 것 같습니다.

또 이 기간은 무엇보다도 심신의 건강 관리가 중요한 부분이었다는 것 같습니다. 스테디가 진행되는 동안 스테디 원들이 크고 작은 감기나 몸살로 하루, 이틀 스테디를 건너뛰는 경우가 발생하였습니다. 다행히 저는 비교적 낙천적인 성격 때문이었던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공부한 덕에 큰 병치레는 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을 급하게 먹기 보다는 무리하지 않고 '꾸준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맘을 편하게 먹었던 점이 득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또 1차 공부에만 매달리기 보다는 평소 잘 읽지 않던 소설을 틈틈이 읽으면서 마음의 여유도 찾고, 더불어 속도 능력과 독해력을 높이는 연습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1차를 준비한 결과 08년 입시와 행시 1차에 모두 합격하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07년에 두 시험 모두 불합격의 부문을 삼켰던 것에 비하면 장족의 발전이었고, 저는 기출분석을 철저하게 한 것이 큰 도움이 되었다고 여전히 믿고 있습니다.

#### 4. 다시 또 고시촌으로 (08. 3월 ~ 08. 6

월)

1차 예상 커트라인에 여유가 있었기에 망설임 없이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 주 다시 고시촌으로 들어갔습니다. 1차를 잘봤다는 자신감뿐 아니라, 생각지도 않았던 입시까지 붙었다는 자신감으로 두 번째 고시촌 생활은 매우 호기롭게 시작되었습니다.

어쩌면 마지막 수험생활이 될지도 모른다는 각오로 공부를 시작했고, 3월은 정신없이 지나갔습니다. 3월중에 치룬 입시 2차 경험은 2차 시험이 이런 것이라는 감을 잡는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물론 경제학 3순환이 끝나면서 시작된 입시 2차는 당연히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경제학을 제외한 나머지 과목들은 1년 동안 내용 공부만 틈틈이 했을 뿐 시험 감각이 사실상 체로 베이스 상태였기에 아는 것만 최선을 다해서 쓰고나오자는 생각으로 시험에 임했습니다. 경제학은 3순환 직후여서 어렵지 않게 볼 수 있었지만, 행정법은 생각했던 것보다 문제의 쟁점을 파악하는 것, 논리적 목차를 구성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법전을 활용하는 법을 연습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행정학과 정치학은 세 문제 가운데 두 문제로 10페이지를 채우고 나왔고, 선택과목이었던 정보체계론은 3페이지를 겨우 채우는 수준이었습니다. 결국 행정법과, 행정학, 정보체계론에서 과락을 받고 불합격했습니다.

입시 2차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은 단순히 책을 수차례 회독하고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실전에서 경쟁력을 키우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머릿속에 가진 수험 지식들을 출제된 문제의 취지와 유형에 맞게 끄집어내고 논리적으로 구성하는 연습을 함으로써 문제를 접하면 기계적으로 반응할 수 있게 되는 수준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입시를 보고 돌아와서 3순환과 4순환 수업을 들으면서 가장 중점을 두었던 것은 반드시 학원 모강을 제 힘으로 풀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비록 논점을 일탈하는 일이 있더라도 끝까지 제 논리로 저의 답안을 구성하는 노력을 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점수도 잘 나오지 않고, 책을 펼쳐보지 않고는 답안을 온전히 완성하는 것도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꾸역꾸역 학원과 원룸을 오가면서 큰 '슬럼프'없이 3순환과 4순환을 모두 마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험을 일주일 정도 앞두고 고시촌의 방을 정리하고 집으로 돌아가 마지막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이때 다소 요령이 부족했던 것이 급한 마음에 마냥 서브노트나 단권화 된 책을 뒤적이는 것으로 갈무리를 했습니다. 결국 시험을 앞두고 내가 무엇이 정리되었고, 무엇이 부족한지 제대로 파악조차 되어있지 않은 채 2차 시험이 시작되었습니다.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도 크게 긴장하지 않는다는 사실은 저의 장점이자 단점이었는데, 행시라는 호락호락 하지 않은 시험은 저의 그런 안일한 태도에 쉽게 합격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니다. 극도의 긴장 속에서 치려야 할 2차 시험기간 동안

에도 시험을 마치고 슬슬 1시쯤 집에 돌아와서 밥을 먹고 낮잠을 2시간씩 자가면서 너무 나태하게 다음날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사실 그 당시에는 제가 내일 시험을 위해서 반나절도 되지 않는 시간에 무엇을 해야하는지 조차 계획에 없었기 때문에 그랬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그럭저럭 시험을 봤고, 나름대로 잘봤다는 생각이 들어 기대에 부풀게 되었습니다.

##### 5. 대학 졸업과 2차 낙방, 또 한 번의 도전 (08. 9월 ~ 09. 2월)

09년의 여름방학은 2차 시험의 후유증 때문이었던지, 아니면 잘 봤다는 '근자감' 때문이었던지 수험 서적들에 먼지가 쌓일 정도로 행시와는 담을 쌓고 보냈습니다. 09년 가을, 4학년 2학기를 맞이하는 저에게 가장 눈앞에 닥친 고민은 '과연 이번에 졸업을 해야하는가, 말아야 하는가'였습니다. 수능을 다시 본 탓에 남들보다 2년이나 늦은 것도 있고, 군복무라는 문제도 남아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09년 가을학기를 마치고 졸업을 하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 졸업을 위해서 전공에 전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동안 다소 소홀했던 전공에 집중하면서 결국 행시는 완전히 잊어버리고 지냈습니다. 그런 와중에 접한 2차 불합격 소식은 안주하고 있던 제게 큰 불안감을 몰고 왔습니다. 졸업은 예정되어 있는데, 믿었던 시험에 낙방하면서 장래에 대한 불안이 현실화되었던 것입니다. 덕분에 중간고사도 시원하게 망쳐버리고 한동안 방황 아닌 방황을 했습니다.

하지만 위기에 둔감할 정도로 낙천적

이고 긍정적인 마인드는 그런 방향을 오래가게 하지 않았습니다. 이미 다른 진로를 모색하기엔 늦었기에, 또 그동안 공부해왔던 것들을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기에 해보는데 까지 해보자고 마음먹었습니다. 이때 질책보다는 용기를 북돋아주신 부모님의 응원이 큰 힘이 되었고, 믿고 지원해주시는 부모님을 생각하면서 의지를 굳건히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기말 시험이 끝나자마자 다시 1차 스테디를 구성했습니다. 전년도 스테디 멤버들이 고스란히 다시 뭉쳤고, 전년도와 똑같은 방법으로 1차를 준비했습니다. 입시는 비록 떨어졌지만 행시는 여유있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1차 시험이 끝나고 바로 그 다음주 월요일, 진로를 결정짓지 못한 채 대학을 졸업하였습니다.

## 6. 다시 기회를 잡다 (2009년 3월 ~ 2009년 6월)

저는 '이 공부를 다시 또 해야 하나'라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이렇게 다시 2차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에 와서 생각해보면 이 시기야말로 제가 가장 공부다운 공부를 했던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돌이켜보니 전에는 학원 강의만 따라갈 뿐 나에게 필요한 공부가 무엇인지, 과목별로 전략을 어떻게 짜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실천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하기에 앞서 걱정되었던 점은, 전체적인 시험 기간이 길었던 것에 비해서 집중적으로 공부한 기간은 길어야 반년이 못 되

었던 탓에 서브나 단권화 작업이 영성했다는 점이었습니다. 또한 전년도 2차 시험을 떠올려보니 스스로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 자신의 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위안이 된 것이 있다면, 막상 3순환이 시작되고 모강을 치르면서 그래도 생각보다 제 머릿속에 누적된 수험 지식이 적지 않다는 사실에 안심하게 되었고—좌절하지 말라는 채점자의 배려였는지도 모르겠으나—그로부터 자신감을 얻었던 것 같습니다.

덕분에 남들이 서브를 간추린다는 3순환 기간에 저는 가지고 있던 서브의 영성한 틀을 바로잡고, 살을 더 붙이는 작업을 했습니다. 사례도 지속적으로 수집했습니다.

경제학의 경우에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서브파일을 과감히 포기하고, 황종휴 강사님의 『트리니티』 시리즈에 기존의 서브에서 취사선택된 내용들을 빼와 살을 덧붙이는 방식으로 새롭게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모강을 통한 문제 풀이 연습 및 그동안 간과했던 경제학 답안지의 목차구성 연습에 중점을 두고 공부했습니다. 답안 피드백에 많은 신경을 쓰면서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는 노하우—예컨대, 필립스 곡선을 구하는 문제에서, 필립스 곡선의 개념과 의미를 빼놓지 않고 쓰는 것처럼 숨어있는 작은 득점요소를 놓치지 않는 것—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행정법은 처음 06년 공부를 시작할 때 샀던 교과서가 이후에 개정판이 3번

이나 나온 탓에 새로운 판을 구해서 새롭게 단권화 작업을 시도 했습니다. 상당한 시간이 소모될 수도 있는 모험이었지만 고맙게도 김기홍 강사님이 정갈한 단권화 자료를 나눠주신 덕분에 생각보다 단권화 작업을 단기간에 끝낼 수 있었습니다.

행정학은 08년에 이명훈 강사님의 책을 바탕으로 만든 서브에, 이동호 강사님의 자료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서브를 만들어갔습니다. 행정학은 학원 모강만 따라가다 보면 자신의 논지나 비판적 사고가 결여된 답안지를 쓰기 쉬운 과목인데, 저는 행정 이슈라면 무조건 일단 비판적으로 보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서브를 만들 때도 해당 주제와 관련된 반론이나 문제점, 역효과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다른 과목에 비해서 행정학이야말로 이런식으로 완성된 서브노트가 실제 시험에 가장 큰 기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정치학의 경우 저는 정원준 강사님의 수업을 지속적으로 들으면서 강사님이 나눠주시는 논문 및 교제로 쓰인 책들을 섭렵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정치학의 큰 주제별로 나름의 논리체계를 세우는 방식으로 서브를 만들었습니다. 정원준 강사님의 수업은 호불호가 명확히 갈리는데 저는 그런 부분에 신경쓰기 보다는 스스로의 비판적인 사고방식을 키우는데 중점을 두고 수강했던 것이 정치학은 물론 행정학의 고득점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게 가장 급했던 것은 선택과목(정보체계론)이었습니다. 서브와 단권화 작업을 뒤늦게 하면서 선택과목에 할애된 시

간이 너무 부족하였습니다. 다만, 2년 전 대학교에서 <정보시스템관리>라는 전공수업을 매우 흥미롭게 들었고, 이 과정에서 최근 정보화 이슈 및 정보와 조직의 융합 사례들을 심도있게 공부할 수 있었는데 이것이 선택과목 공부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여줄 수 있었습니다. 강제명 강사님의 책을 통해서 출제 가능한 이슈들만 압축하여 서브를 만드는 모험을 시도했습니다. 정보체계론의 경우 대부분의 이슈들이 행정학의 큰 틀에서 접근가능하다는 생각을 했기에 정보보안, 전자정부 같은 중요 이슈들만 파악하고 있다면 답안을 작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5월 중순이 되면서 저는 고시촌으로 들어왔습니다. 마침 고시촌에 살던 친구가 한 달 정도 방을 비우면서 집을 잠시 빌려 쓰게 되었습니다. 이제 시험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기에 1분 1초가 아쉬운 시기였습니다. 제 기억으로 이때는 하루에 순수한 공부시간만 대략 12시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다만 잠은 7시간 정도 충분히 자면서 체력관리를 했고, 다행히 워낙에 중, 고교 시절까지 많이 뛰어난 탓에 기초체력은 자신이 있는 편이었습니다. 식사는 고시식당을 틈틈이 이용하면서 정신적으로 지치는 것을 방지하기위해 일반 음식점에서 밥을 많이 사먹었습니다. 이때도 반드시 서브하나라도 가져가서 읽으면서 식사했던 것 같습니다. 미리미리 열심히 하지 않은 탓에 막판에 몸이 고생을 하였습니다.

4순환이 6월 중순경 끝이 나고, 다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시험을 일주일 앞

두고는 학교 도서관을 이용했습니다. 집에서 공부를 하면 몸도 처지지만 마음도 나태해질 수 있다는 생각에 도서관에 나가 인적이 없는 열람실에서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동안 정리한 서브노트와 단권화 된 책을 가볍게 일갈하였고, 각 과목별로 그동안 보았던 모강 답안지를 읽어보면서 제가 어떤식으로 답을 썼었는지 상기했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써야겠다.'는 식의 마인드 컨트롤을 했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스스로 준비가 많이 되었다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습니다. 작년과는 분명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자신감을 다지는 시간이었습니다.

시험기간에도 시험장에 제일 먼저 도착해서 시험 시작 직전까지 서브를 훑어보고, 마음을 가다듬는데 전념을 했습니다. 전년도와 달리 스스로 비장한 각오로 시험에 임한 덕분에 5일간의 시험을 끝내고 시험장을 나오면서 스스로 좋은 예감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 III. 전략과 목표, 그리고 꾸준함

수험 생활을 돌아보니 어찌보면 저의 수기는 수험생분들께 '이렇게 공부하면 안됩니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합격 수기가 된 것 같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행시는 최소 1년이라는 긴 시간을 완주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계획, 그리고 그 전략을 실천할 수 있는 꾸준함이 요구되는 시험입니다. 하지만 저는 입문 초기에 그렇게 하지 못했기에 오랜 시간을 돌아서 겨우 합격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합격도 충분한 실력과 노력보다는 운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에 후회는 남기 마련이지만 저 스스로 제 수험생활에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래서 자격미달이지만 먼저 시험을 경험한 사람으로서 반드시 조언을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첫째, 전략과 계획은 반드시 필요함이다. 많은 합격생들을 만나보면 거의 대부분 과목별 공부전략이나 짧게는 하루 하루의 계획에서부터 길게는 1달, 1년의 계획을 가지고 공부했습니다. 그렇지 못했던 저를 반면교사로, 작은 목표라도 매일매일 세워가시면서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략과 계획은 꾸준한 노력과 성실함이 필요합니다. 제가 그나마 합격할 수 있었던 요인은 아마도 이 부분이 아닐까 자평해봅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지 않는 성격과 채찍은 외면하고 당근에 반응하는 대책없이 낙천적인 성격 때문에 공부를 하면서 큰 슬럼프를 겪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독하게는 하지 못했지만 공부하는 시간만큼은 꾸준하게 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의미 있는 공부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스스로를 위로하면서 국민 마라토너 이봉주 선수처럼 꾸준히는 달렸습니다. 다른 분들도 너무 마음을 급하게 먹지마시고, 작은 목표들을 하나하나 달성해나가는 꾸준함과 성실함만 유지한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 IV. 수기를 마무리하며

고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을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연애를 포기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환학생이나 어학연수의 기회를 포기하기도 합니다. 또 작게는 영화나 연극, 전시회 같은 문화생활을 포기하기도 하고, 친구들과의 술자리나 친목 활동을 포기하기도 합니다. 더구나 고시는 그 결과조차 불확실한 시험인데 말입니다.

일전에 일찌감치 취직한 친구가 술자리에서 한번은 "네가 행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왜 하나?"라면서 저를 걱정하던 일이 생각납니다. 불확실성이 비단 고시에만 한정된 것은 아니지만, 어쩌면 행시뿐만 아니라 고시라는 것이 기회비용이 큰 시험임을 틀림없을 것 입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젊은 청년들이 미래의 사무관을 꿈꾸면서 자신과의 싸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공부를 하면서 다른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지만, 공직의 길에 대한 꿈은 포기하지도, 포기할 수도 없기 때문 일 것입니다. 또

그 꿈이 갖는 가치는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스스로에게 중요한 것이기도 할 것입니다.

저도 비록 운이 좋아서 시험에 합격하긴 했지만 공부를 하면서 갖게 된 공직에 대한 꿈과 공직에 나가 펼쳐보고 싶은 꿈에 대한 신념을 포기했다면 지금과는 다른 상황에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저를 지탱해줬던 것은 지인들의 응원과 무엇보다도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아니었나 자평해봅니다.

이미 공부를 하고 계신 분들도, 또 이제 행시를 준비하려는 분들도 모두 공직에 대한 꿈과 신념을 확고히 가진다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제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라면 자신이 왜 이 시험을 통과해야만 하는지, 왜 자신이 공직사회에 나가야 하는지를 깊이 숙고해보셨으면 합니다. 꿈이 확고할수록 의지가 강해지고, 그 의지가 강해질수록 합격에 도달하는 길은 더욱 짧아질 것입니다. 모든 분들이 건승하길 기원하는 마음으로 수기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화이팅!